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農業團體三機關改造問題

一

朝鮮內의 農業團體인 産業組合 金融組合 農會의 三機關은 表面으로보면 三者鼎立의 基礎鞏固한 機構로써 朝鮮의産業乃至 經濟發達의 目的達成을爲하야 各其分擔的任務를 다하고잇는것가티 보이나其實은 各機關의 連絡의缺如와 相互疏隔으로 그運用의 圓滑을 缺하는바적지안허 그改造問題는 오랜동안의懸案이 되어잇섯는데去年에 三機關의監督權을 總督府農務課에統一하야 同一體系에 노히게는하엿스나 實際의 運用을보면 亦是疏隔은 除去되지안엇을뿐아니라 三者三樣의自行自止的步調로 何等統一調整의 效果를 거두지못한 實情에 잇슴으로 農林局에서는 三機關을 今日時勢에 適應하도록 改造를斷行하려고 目下 銳意硏究中에 잇다고 傳한다.

二

徹底的으로말하야 農業團體라고하면 三機關이 모두 農業에 關聯되는것임에는 틀림업스나 周知와가티 農會의 主要한事業은 農業의指導奬勵에 關한施設, 農民의福利增進에 關한 施設, 農業에關한 調査와硏究, 農業에關한 紛議의 調停及仲裁, 農業의 改良發達을 圖함에 必要한事業等이오 産組는 同組合令에 明示된바와가티 (一)組合員生産物 (加工又는不加工)의賣却 (二)産業經濟에對한 必要物을 買入(後에加工又는不加工)組合員에 賣却코産業經濟에對한必要物을 生産後 組合員에 賣却하며(三)組合員으로하여곰産業, 經濟에必要한 施設을 利用케하는것 即 販賣, 購買, 利用의三者에 局限되어잇스며 金組는 內地産組制度中의 信用組合制度를 分離하야 信用事業에 關한 部分을 擔當케한것인데 近來에는 農民에局限되엇든 組合員資格을 擴張하야 中小商工에도 及하게되어 純全한 農業團體의 領域을 넘게되엿스나 組合員에對한 資金의 貸付로부터 供託 又는 地方金融調節에 關한業務에至하기까지 모두 庶民金融機關으로서의 機能을 發揮케된것이다.

三

이리하야 三者의目的과 그行할分擔的任務에는 劃然한 區分이잇다. 그러므로 各其그分擔的任務를遂行하엿스면 問題는 업슬것인데 그러면何故로 이三機關의 改造가必要하게되엇느냐하면 그原因은 一二가아니나 個個機關의運用이 宜當치못하다는 非難攻擊은 暫時이를姑捨하드라도 三者의目的과 그分擔的任務는 相異하면서도 三者는 다가티 朝鮮의 産業及經濟發達이란 大目的實現을爲하야 同一한 傘下에統一되어 三位一體的 指導原理로 動하여야할것임에도 不拘하고 統一된監督, 周到한連絡이 缺如된結果 三者三樣의各異한步調를 모이는同時에 一方이 他方의領域을 侵犯하고보면 領域을 爲한 機關의 圓滑한 發達도勿論 困難하려니와 그것이 마치無用의長物과가티 보이게되어 各者間에 摩擦軋轢이 生하게되며 各機關의圓滑한 運用은 不可能하게될것이 事實이다. 이것이그 根本原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四

이것을 端的으로 말하자면金組는 가장먼저 設立되어 오랜 歷史를가지고 農村에 設立되기前부터 各方面에 손을 뻐첫든關係로 地方의實情으로보면信用事業에 局限되엇다는 金組가 農會나 産組의 事業領域에까지 손을 뻐치고 잇스며, 産組나農會도 金融은 金組에 依存하는 때가 적지안허 마치 農會나産組가 金組指導下에 잇는것가태서 여기 가장 큰 摩擦이 생기게되는것이다. 三者의 圓滑한發達을 爲하여서는 이에 對한調整이 特히 必要한데 金組側의 意見으로서는 金組가 그領域을 侵犯한것이아니오 朝鮮의 實情에따라 自然成長的으로 發達해 온것이 今日의 金組이므로 이 旣得權을 구타여 抛棄할수업다는것이라하야 이에 反對態度를 表明하고 잇스나 産業團體의 圓滑한 發達, 그運用의 圓滑을 爲해서는 旣得權이라도 讓步할 必要가잇스면하여야 할것이아닌가? 勿論 이點은 當局으로서도 充分理解하고 잇슬것이므로 今後 改[illegible]에 當하야 그機能이 [illegible]맛거니와 이와同時에 吾人으로서 [illegible]하는바는 郡農會가 道平均九萬圓 郡農平均五萬圓이란 大豫算을 가지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그機能을 實情에適合토록 遂行치못하고잇는것은 各農會에 석그러운 事務的問題와함께 特히 考慮할 問題의 하나일것이오 生産組合 消費組合的性質을 兼備하엿다고는하나 産組가 그 局限된 領域以上으로 進出하야 問屋 中、小商工에 도로혀 打擊을 미치고 奸商排擊에 依한 生産者利益擁護는 이[illegible]이오 도로혀 生産者의 不利가 되는일이 不無하며 또는 各[illegible]에 어느[illegible]의 [illegible]方的[illegible]에 따를수잇는 [illegible]이 必要한 同時에 全體的으로 보아 組合的 影響을가진 自治團體가 마치 [illegible]하야 往往 官吏와 가튼 [illegible]보이는것이나 때로는 組合員의 [illegible]를 無視하고 强制的手段을 [illegible]하는 [illegible]가 地方에따라서는 업는바도아니니 어러한點은 些少한問題인듯하나 各其地方에잇서서는 重大問題로 되고잇는터이므로 三機關의 改造에當하야 어러한 細節的點에까지 細心한 用意와 考慮가잇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全國經濟部長會議

物價昂騰抑壓策으로 標準價格制定도必要

調整委員會設置코 對策의徹底를期圖

吉野商相의訓示要旨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最近物價抑制 物價調整 그他 劉下의 緊急問題에 對하야 政府의 方針을 支持하고 그 實施에 遺憾이업기를 期하기爲하야 五六兩日에 亘하야 全國各府縣經濟部長會議를 招集하고第一日은 五日午前九時부터 特許局講堂에서 열리여 吉野商相으로부터 訓示가잇슨後 指示事項을 說明하고 商務局關係事項에서부터 協議에드러갓다 (寫眞은 吉野商相)

◇指示事項

一、物價調整에關한件 一、應召中小商業者營業援護에 關한件 一、重要物資의 廢品回復에關한件 一、綿製品의需給調整에關한件 一、羊毛製品의 需給調整에關한件 一、代用品工業의 振興과及代用品의使用奬勵에 關한件 一、中小工業의 戰時工業轉換에關한件 一、物資需給의調整에 伴하는地方職員設置에關한件 一、石炭、金、銅、鐵鋼等의 生産力擴充에 關한件 一、鐵鋼、銅 白金等의 使用制限과 配給統制에關한件

訓示要旨

時局의 進展에伴하야 持久長期戰에 必要한 物資는 더욱 만하지고 이에 關한 行政事務도 더욱複雜多岐하게되엿스므로『臨時物資調整局』을 新設하야 物資의 持久長期戰에關한 具體的計畫을 調査立案하고 여에 基하야 當業者等의 指導에 當케하거로 되엿는데 現下의 商工行政에 잇서서 가장重要한 問題의하나는 物價에 關한 問題로 昨年은 大體로 保勢狀態를 維持할수가 잇섯스나 今年에드러와서는 再次騰貴의 傾向을보여 여情勢를 放置하면 各方面에 惡影響을 生할念慮가업지안타 物價의適正을 어드려함에는 物資需給의 適合을圖함이 그根本的 方策임은 勿論이나 物資가 不足하게되는 境遇에는 흔히 買惜 買占等의 不穩當한行爲에 依하야 物價를不自然하게 昂騰시키는者가 不少하다 이意味에서 當局에서는 暴利取締를一層强化할必要가잇슬뿐아니라 一步나아가 各種의重要物品에 對하야 標準價格을 制定함과 가튼 處置도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物價調整에關한 豫算을 計上하야 中央地方에 官民有識者로 組織된 委員會를 設置하고 그運用에 遺憾업기를 期하는同時에專任職員을 商工省과 地方廳에配置하야 官民一致로 物價對策의 徹底를 期하기로되엿다 다음時局下의 中小商工業問題에 對하야는 我國中小商工業者는 所謂 堅實한 中産階級에屬하야 그維持振興을 圖함은 國家組織上으로도 크게 留意를要한다 特히 我國의 中小工業者의 生産力의 點에서 보드라도輸出用보다內地用의 工業品이그太半의 生産을 占有하야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고잇다 此等中小工業者는 所謂 平和産業에屬하는者가 만하 今次事變에 直接間接의 影響을 밧는者가 不少하다 따라서 當省으로서는 十三年度豫算에 잇서서 此等中小工業者의 軍需工業轉換을 助成하기로 되엿다 各地方廳에서도 어事情을 十分諒解하고 中小工業者의 自力更生과 一步나아가 今日에잇서서 生産力擴充의 一翼으로 그機能을 發揮하도록 指導하기를 希望한다 그리고 應召中小商業者의 營業에 對하야 그援助를 圖함은 此際 特히 要望되므로 當省으로서도 必要한經費를 豫算에計上하야 商業奉仕委員制度를 設置하고 이것을 中心으로 聖戰에參加한 應召商業者의 銃後援助에 遺憾이업기를 期할方針이다

重光大使의抗議 蘇聯人民委員長一蹴

【莫斯科四日發同盟】重光大使는 四日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에게對하야 蘇聯의 對支軍事援助에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는데 蘇聯政府는 四日 타스通信社를通하야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重光大使의抗議를拒否하고그要旨를左와如히發表하엿다 日本의 抗議中에述한 蘇聯의 飛行士에對하야는 蘇聯政府는 何等 關知하지못할뿐아니라支那側에는 各國의 飛行家가 支那軍에 爲하야 戰爭하고잇지안는나 日本의 見解에依하면 支那에서는 戰爭이存在하지안는다고하는데 그가튼地域에서 蘇聯은 他國과同樣으로 自由로 行動할수잇는 權利를 가진다 또軍需品供給에 關하야 多數한國家가 支那와同樣으로 日本에도 어軍需를供給하고잇다

纏回軍八千 蘇聯膺懲을絕叫

【綏遠五日發同盟】昨夏來共産主義絕對排擊을標榜으로 和闐喀什噶爾地方의 漢人官吏를 追放하야 熱烈한 宗敎擁護抗爭을繼續하든 오라든바시가引率한 纏回軍約八千은 最近馬仲英의和闐入과 때를가티하야 그協力을어더 勢力을加하자 飜然 蘇聯膺懲을 絕叫하고蹶起하야 回回敎聯合軍을 組織하는 同時에 其一部는 어미攻勢로轉하야 阿克蘇에 進擊을開始하엿다

二千六百年奉祝 秩父宮殿下奉戴式

全國에令旨를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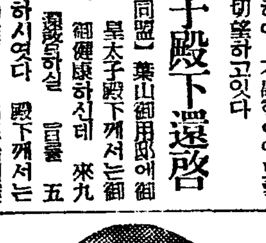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奉祝會에서는 來十日午後一時부터 神宮外苑에서 總裁秩父宮殿下의 奉戴式을 擧行할터인데 其席上에서 惶悚하시게도 秩父宮殿下께서 令旨를賜하실際 前例를깨트리시사 全國에 中繼放送을 允許하시기로되엿다 當日은 朝野의名士 五萬餘名이 參列、二時間에亘하야 全國에 實況을放送하실터인데 令旨를 賜하실時는 前例에依하면 스위치를끄게될것이나 同會에서는『全國民의 奉祝會』라는 意義를思하야 當日參列치못한 全國民에게도 傳할수잇도록 秩父宮家 及 宮內省에放送御許諾을奉願한結果 特히允許하신것인데 放送時刻은 當日午後一時廿分前後로 聽取者는 特히 態度에注意하야 不敬함이업도록 同會에서 切望하고잇다

皇太子殿下還啓

【東京電話同盟】葉山御用邸에御滯在中이신 皇太子殿下께서는御機嫌御麗히 御健康하신데 來九日東京에 還啓하실 旨를 五日에 吩咐하시엿다 殿下께서는 御年六歲 幼稚園의 御學齡에達하심으로 東京에還啓하신 御後에는 女子學習院幼稚園兒中에서 選拔한 御相對와함께 赤坂東宮假御所에서 幼稚園의 御課程을 受하실御豫定이시라고 拜承된다

內鮮一體强化와 兩制度精神强調

南總督京畿視察(第一日)



志願兵制度、新敎育令의 二大制度實施直後 地方農村의 實態를硏究하고저 突然企圖된 南總督의 京畿道管內農村視察第一日은 五日 楊州、抱川、漣川 三郡에亘하야 行하엿다 午前十時 議政府로부터 抱川을거처 正午頃 任友의永中金山에到着 晝食을마치고 漣川經由 京元線列車로 午後六時十五分 京城驛着歸任 第一日의視察을끗마치엇다

×

南總督은 各郡廳에서 各地方有力者에對하야 施政의根本方針인 內鮮一體를强調하고

一、現下半島의最大緊要事는 內鮮一體의實을擧함에잇다 地方民을指導하는 地位에잇는各位는 率先하야 人과人의和를圖하고 朝鮮人은 猜疑心을버리고 內地人은 優越感에서떠나 一致協力 時艱克服에努力하기 바란다

二、郡守中心主義에依하야 各官의 職責에따라 部落振興에努力하기바란다

三、前二項에附加하야『民衆에接近하라』는 [illegible] 圓滑한運行을期하라는要望을 示한바 郡職員一同은 모두 [illegible] 皇國臣民의誓詞를 齊唱하야 答하고 其音聲은 實로 힘잇게들 動되엿다

×

第二로 소의沿道一帶의 禿山은 依然하야 今後의 綠化工作을待望하는 殺風景을 呈하여잇다 總督은 昨年咸南과江原의 農村에 드러가 이러한視察을 行하엿는데 前二道의 山野에比하야 도로혀 京畿道에 禿山이 이처럼殘存하엿는가를 想起케할만큼 興趣가업섯고 일즉 [illegible]으로荒廢된 痕跡이 어곳에도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條件에도 屈치안코 振興한 精神力에 基礎를두어 이러나려는 農村의意氣는 楊州郡二東面[illegible]更生部落 漣川의 道農事試驗所試驗地及同[illegible]에 農村女子講習所等과 그리고 [illegible]의田邊에서 이러나가 婦人에 依하야 表彰되여잇스며 [illegible]部落에 指導員李廷均氏가 赤銅色으로 化한 얼골에 素朴한 朝鮮語로 말하는 部落更生의苦心談에 對하야 南總督은 저러케 [illegible]한 草木을 보아도 알수잇다 家庭의 掃除와 庭園의 整理等은 곳되는것이나 저 [illegible]木은 決코一日이나 二日에生長한것이아니오 二十數年에亘한 努力의 結果라고생각한다 이것을보고 總督은 깁부게생각한다 一層精勵하기바란다 고 率直히 激勵한다

×

抱川郡蒼水面[illegible]里에 잇는 王子酒林會社에 酒林을 主管하는 小西善之助氏는이미二十一年間 同地에서獻身的으로部落指導에 當하야 昨年은五千圓을投하야 初等學校를 建設한篤農家로 알려잇고 部落民이 [illegible] 小西氏의 宅에서 [illegible] 이 어미 어려한 [illegible]을 한것이다 [illegible] 此勞苦를 [illegible] 激勵하고 [illegible]

×

그러나 [illegible] 語審及은 京畿道로는 매우 沈寂하다 南總督은 當日視察途上에서 [illegible]

皇國臣民의 誓詞는 國語로齊唱하고 國語로 其精神을 徹底케하여 最良하다 어느英語로나 支那語로나 露西亞語로는 到底히 解할수업다 고 말한것으로도 其一端이 窺視된다

×

各郡廳所在地에서는 多數한學童이 總督一行을 出迎하엿다 總督은 아프로나아가 『學校의寄宿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發하다 그리고 『그러타學校의寄宿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듭묻는다 그리고校長又는 訓導를도라보고 『어지해서學校의寄宿이變햇는가其 뜻을充分히兒童에게가르쳣겟지』하는말을 남기고 지나간다 校名改稱만으로는 아무所用도업다 其趣旨를 徹底하여야 今回의改稱意義가 一層깁게되지안는가 (寫眞은 南總督)

對日戰에蘇軍을 支那에派遣한事實업다

蘇聯外務委員發表

【莫斯科四日發同盟】蘇聯邦의對支軍事援助에關한 重光大使의抗議에對하야 蘇聯政府는 四日午後 다스通信社를 通하야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의 答으로 表하엿다 蘇聯側의 見解는 大要如左히發 飛行機와 其他武器의 對支賣却問題에關한 蘇聯政府의 見解는 一般으로 承認되는 國際法의 標準에 一致하는 바어나 어事實에 對해서는 이미 東京駐箚스카우스키大使로부터 直接廣田外相에 說話한바이다 따라本問題에深入할必要는업스나 況各國으로부터 武器의 供給은支那뿐이아니요 同時에 日本에對해서도 行하는 實情을 思考할때에는 더우 其必要를認定치안는다 日本軍에 捕獲된 蘇聯飛行士의 供述이라는것은 蘇聯政府의全然閑知치 못한바이다 此點에對해서는蘇聯政府는 日本에 對하야 何等의 義務를 負치안는바이나 또國際法에依해서도 조금도束縛되는바는아니며 事實上으로도 蘇聯政府는 對日戰에參加시키기爲해서蘇聯軍隊乃至,兵士를 支那에派遣한일은全然업다 蘇聯의特殊한 國家機構에 對한言及은 全然本問題와關係업는것으로 此에言及하는것은 單只 그機構에對한 無理解를 表示함에 不過하다 무엇이든지 蘇聯의 國家機構는 國內問題이여요 他國家에對한 務의 義務를 蘇聯政府에 負케하는 各國으로부터 支那에到着하는外國義勇兵은 現在支那兵에 從軍하는것을 잘아는일이어다 그러나 日本政府는現在只今까지 支那軍에從軍하고 또는現在從軍하는 外國義勇兵의 母國인 如何한國家에對하여서나 抗議를 提出한것을 듯지못하엿다 以上의 事實로보아 日本政府가 義勇兵問題로 何等 如斯한抗議를 할法律的 根據가안되는것을 充分치 알것은 明白하다 그리고 日本當局의 言明에依하면 現在 支那에는 戰爭은업다 日本은 支那와戰爭하지안는다는것으로 現在支那에서 이러나고잇는 事態는 多少라도 偶發的性質을가진 事變으로 表現되고 兩獨立國家間에는 戰爭狀態라고 稱할 狀態는 存在치안는다는 이러한 見解에依하면 日本政府의 抗議는 益益意味가적게될것이다

對蘇抗議를繼續 外務省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蘇聯邦의對支援助에關한 重光大使의 抗議에對하야 蘇聯政府는 [illegible] 拒否하엿는데 外務當局에서는 蘇聯政府의 對支軍事援助는 [illegible] 指揮下에 되는바는 [illegible]의 事實로서 今後다시 重光大使를通하야 嚴重한 抗議를 繼續할터이라는데 外務省은 五日午後 左와如한 當局談을發表하엿다

外務當局談 支那事變勃發以來 蘇聯邦의 對支援助는 或은中國의 共産黨을通하야 或은直接武器彈藥의供給에依하야 行하여여왓스나 昨今 益益露骨化하야 蘇聯邦政府는 赤軍將士를 支那에 派遣하야 直接支那側의 作戰에參加시킨事實이 明瞭하게되엿다 其實例의一、二를 擧하면 一月二十六日支那軍航空隊의南昌空襲時 我軍에依하야 擊墜된 同飛行機와함께 戰死한 搭乘者二名은其所持品에 依하야 蘇聯邦人인것이 明白하게되엿스며 또다시 三月十四日蕪湖上空에出現하야 我軍에 擊墜된 [illegible]蘇聯組員으로 判明된 [illegible]가된 도우니빼.마하일로드레베치는니그라드航空隊付飛行士中尉로 昨年十月中旬十數名의同僚와함께蘇聯政府의 命에依하야 支那에 派遣된것이 判明되엿다 外國人의 入國해在까지 極度로 警戒하야 實質上鎖國에 가까운 狀態에잇고 따라서政府의 命에依치안흔 自國人의 外國行을 禁止하는것으로 보드라도 蘇聯人이支那軍에 參加함은 所謂義勇兵이라는 說明으로써 辯解하드라도 何人이나 此를信하는者는업슬것이다 그리고 蘇聯邦에잇서서 軍事航空 民間航空共히蘇聯政府의統制下에 잇고 飛行士는 軍人飛行家와 民間飛行家를 不問하고 義勇兵으로 看做할수는업슬것이다 蘇聯邦은 我方官憲의取調를밧은蘇聯組員과 [illegible]北滿代償金支拂停止問題를드러 自己의對支援助行爲를 辯護하나 그것은 얼토당치 안흔것이다 蘇聯邦의對支援助가 蘇聯政府의 直接命令指揮下에行하는것은 疑心업다 蘇聯邦의不徹底한辯解는 我方으로서는 問題視하지에 不足하다

擧國協力求코저 各閣僚遊說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現下長期戰下의 國民生活安定對策으로 消費節約 物價調整 需給의調整 擴大豫算實施에 當하야서의節約方針等 各般의 施策을 行하고잇는데 特히 物價對策은 [illegible] 一般의理解를 [illegible]하는 點에는 [illegible]이므로 政府로서는 [illegible]을期하야 近近大藏 商工兩大臣을九州 關西方面에 派遣하야 主로 企業家와 産業者本家 同業組合等에 對하야 政府가 企圖하는 政策을 說明하고 그自主的協力을 要求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政府는 賀屋藏相 吉野商相外에 有馬農相을 東北에派遣하야 事變下 農村의 協力을要求할方針이요 또그他의 閣僚에對하야도 可及的 地方에 遊說시킬 豫定인데 그具體的計畫에對하야는 八日의 閣議에서協議하기로되엿다

京城日報社長 田口弼一氏內定

【東京電話同盟】議者勅選으로된 前衆議院書記官長田口弼一氏는欠員中인 同京城日報社長에就任하기로內定되어 來十日頃來任하기로되엿다

米海軍擴張案 無修正上院通過?

【華盛頓四日加藤同盟特派員發】下院을通過한 빈손海軍擴張案은 四日 上院海軍委員會秘密會議에 附議되엿는데 큰修正도업시 今日中에 上院을通過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右海軍案의通過는 最近에스카레이터條項援用과 헐國務長官으로부터 上院에보낸 書翰等을보지라도 右는 設使軍擴[illegible]

鐵道局公表豫算 二億二千八百萬圓

第七十三帝國議會의 協贊을거처서 公布된昭和十三年度의 鐵道局公布豫算은 作業費一億八百餘萬圓이며 建設及改良費로 一億四百餘萬圓이고 其他私設鐵道補助費 拓殖鐵道敷設費等 總計二億二千八百餘萬圓의 巨額에達하야 朝鮮總督府特別會計 歲出의 五分之二强을 차지하엿다

經常部로는 本年度豫算을 十二年度當初豫算과 比較하면鐵道收入은 前年度에 比하야 一千七百三十二萬一千一百六十九圓(一割四分一厘)이 增加되엿스나 鐵道局作業費는 亦是一千四百九十六萬一千七百七十九圓(一割五分九厘)이 增加되엿스므로 差引益金은 前年度에比하야 二百三十五萬九千三百九十圓(八分一厘)가 增加하엿다 收入增加의 主要한것은 事業增進及 新線開通에따라 旅客收入으로 六百五十餘萬圓(一割八分二厘)과 貨物收入으로 五百二十六萬餘圓(一割三分七厘)의增加를計上한外에 宇拔制度實施에따른小口貨物集配收入의 增加와北鮮鐵道納付金增加等이다

臨時部에는 鐵道建設改良은事業의 緩急을 생각하야 一部의 線上및線延을 함과同時에 最近의 情勢에 [illegible]하야 京城平康間 復線及 通信施設改良을 爲하야새로 三千九百八十八萬圓을 追加하야 그一部工事를 十三年度에 施行하기로하야 結局十三年度年割額은 建設費로 三千二百二十二萬餘圓 改良費로 七千二百十六萬餘圓으로 되엿다 이밧게 拓殖鐵道敷設費로 九十五萬圓 私鐵補助費로 四百十萬圓等이 主要한것이다

用品會計에는 前述한것과가티鐵道事業이 非常히 膨脹함에順應하야 用品會計收支 五千二百十八萬餘圓에 達하야 前年度에比하야 四割二分의增加로 되엿다 그리고 用品資金 二百五十萬圓으로서는 運用의困難은 맛겟스므로 朝鮮總督府 特別會計로부터 五十萬圓의 用品資金繰入을 바다서 資金合計는 現行朝鮮鐵道用品資金會計法의 規定한 最高限度인 三百萬圓으로 되엿다 한다

永井遞相入院

【東京電話同盟】持病이잇는 永井遞相은五日午前十一時 마스치 榮樂林病院에 入院하엿다 大日에 手術을하고 三週間入院할 豫定이다

大阪朝日新聞主催 北支實業視察團入京

同業大阪朝日新聞社主催 北支實業視察團一行二十四名은 五日午後二時三十三分着列車로入京하야 即時朝鮮神宮에 參拜한바 一行은 市內를 視察한後 六日午後一時五十分京城驛發로 大阪、東京으로向할 豫定이라하며 團員은다음과갓다

▲堀內伊太郎(東京堀內伊太郎商店) ▲谷口作治郎(大阪順和商會) ▲大垣吉次(同上社員) ▲津村基太郎(東京津村順天堂) ▲津村岩吉(東京敬天堂) ▲歌橋憲一(株式會社歌橋製藥所) ▲山崎宗晴(森永製菓株式會社) ▲松浦啓信(株式會社松浦商店) ▲小林宗次(株式會社藤井得三郎商店) ▲齊藤政二(株式會社玉置商店) ▲木村利一(株式會社木村製藥所) ▲天野四郎(大阪朝日新聞社) ▲木村己之吉(同上) ▲立石泰輔(同上) (寫眞은 北支視察團一行)

人事·集會

▲河野重三氏(新任迎日郡守)九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赴任
▲角本佐一(京城辯護士會長 辯護士) 五日就任人事次本社來訪
▲藤田爲興(京城辯護士會副會長 京城府會議員 辯護士)五日就任人事次本社來訪
▲曾田嘉伊智氏(鎌倉保育園京城支部長) 禁酒禁煙法朝鮮實施致賀次來社
▲宋相錫氏(牧師)同上
▲金昌俊氏(同)同上

夕刊後市況 五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元	三·四四
釜山	—	—	三·六
群山	—	三·三	三·四
木浦	—	—	三·四
下關	—	—	三·五
名古	—	—	三·五

◆大阪 人絹 後引◆ 當限 七四一〇 先限 七七三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七四〇〇 先限 七七〇〇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七六〇〇 先限 六八八〇〇

春季新學年 入學의好機

早稻田大學의 校外生募集 講義錄

只今世上에서는 가령入營해서 銃을잡는다거나工場에드러가서 機械를 맛지거나商店員이되어 客에게接하게되는경우에 小學校를 卒業한知識으로는 到底히 充分한 活動을바랄수업다 職業의如何를 不問하고저여도 中等程度의知識은誰某에게라도 絕對必要하다 그러므로 小學校만을 畢한 諸君은 今春에는 꼭 本大學의 校外生이되여 우선 中等程度의知識을 修得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때마츰 四月·春季新學年開講只今이 入學의 絕好機이다 何人이라도 꼭 內容見本을一覽하라

內容見本
內容見本은반드시自己의希望하는講義錄을明記해서葉書로申込하기바람

中學講義 (前後期各一年修了) · 商業講義 (一年修了) · 高等女學講義 (上同)
政治經濟講義 (一年修了) · 法律講義 (上同) · 文學講義 (上同)
建築講義 (一年修了) · 電氣工學講義 (上同) · 電氣工學速修講義 (一年修了)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一二 電話牛込三二五五

國享밧는八殿六陵 春期享祀를執行

京畿道서는麗顯陵、崇義、崇烈兩殿에서執行

來廿日甘蔗知事가祭主로

상고 조선의 신라(新羅)의시조 박혁거세왕(朴赫居世王) 어하 석탈해왕(昔脫解王)、김미추왕(金味鄒王)이며 백제(百濟)의 온조왕(溫祚王)기타 청사(靑史)에 혁혁(赫赫)한 치적(治績)을남지 선왕(先王)의 공적을 기려흠모하야 그위대한공적을 자자손손에게 영구히 전함은 물론으로 존귀한 사업이며 비상시에처한 국가가 필요로하는 정신작흥에 조중한과를 주다는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벌써전부터 다음의 팔전육릉에 대하야 지방장관으로하야금 춘추두번식 국향(國享)을 밧드리오는데로 경기도에서는 오는이십일 도내에잇는 려현릉(麗顯陵)과숭의전(崇義殿)숭열전(崇烈殿)의 두전에 감자(甘蔗)지사가 제주(祭主)가되여 춘기향사(春期享祀)를 엄숙히집행하기로되엿다 려현릉은개풍군중서면(開豊郡中西面)에잇서 고려태조 왕건(王建)을모신 능이며 숭의전은련천군미산면(漣川郡嵋山面)에잇서 고려태조외에 현종(顯宗)문종(文宗)원종(元宗)의 삼위를 모신곳이다 숭렬전은 광주군중부면(廣州郡中部面)남한산성(南漢山城)속에잇서 백제(百濟)시조 온조왕(溫祚王)을 모신전당이다 그리고 추기향사는 시월이십일이다 국향을 밧드는전당은경기도외에잇는것은 다음과갓다

殿—崇德、崇信、崇惠(以上慶州) 崇善(慶南)、崇仁、崇靈(以上平壤)

陵—朴赫居世王陵、昔脫解王陵、金味鄒王陵(以上慶州)、溫祚陵(平壤)、東明王陵(平南中和)

小作人들에朗報

"小作更新要求"를해도 推想的通知는無効다"

農地令十八條에…對…한 農林局長解釋

농지령제십팔조의 당사자가 소작지의임대차(賃貸借)기간 만료전 삼개월내지 일년이내에 상대자에 대하야 갱신거절(更新拒絶)통지나 또는 조건을 변경치안흐면 갱신치안는다는 통지를 하지아니할때는 먼저번의 임대차와 가튼 조건으로써다시 임대차를 한것으로본다는조항에 대하여는 종래해석상의문되는 점이만허서 문제되여오든바 이번에 전리남도 지사가 농림국장에게 그해석을문의하여왓슴으로 농림국장은 다음과가티 소작인에 유리히해석회답하야 일부 지주들이 이조항을 악용함을 엄금키로하엿다한다

즉 그조항의『조건을 변경치 안흐면 임대차를 갱신치 안는다는 『통지』의 뜻에대하야 일부 지주들은 다만 지주측에서 『조건을 변경치안흐면 소작계약은 갱신치안는다』든가 또는 『소작료를 올리지안흐면 갱신치안는다』든가의 추상적 통지를하면 그만인것가티 생각하고잇스나 십팔조에 규정한『통지』라는것은 지주가 소작인에 대하야 새로변경한조건으로 소작계약을 체결할터이냐 안할터이냐하는 상당한 고려기간을주려는것으로 지주가 통지할때에는 반드시 내용을 분명히 하야 변경하려는 계약의 구체적사항을 명시할이 필요하고 만약에 추상적 통지만 한때에는 소작계약은 전계약과 가튼조건으로 갱신하려는것으로 인정한다는것이다

城南中學校 新築을準備

工費三十五萬圓으로

일백삼십만원의 거대한 기본금으로 면세반석우에 굿게서잇는 부내룡산(龍山)성남중학교(城南中學校)는 금춘신설인만치 완전한 교사(校舍)준비가 채못되여서 위선 림시교사에서 개교는 하엿스나 현재교사로는도저히 동교의 리상과 목적을달성하기곤난한점이 한두가지가아니므로 공사비 삼십오만원으로 교사를 신축이전하고저 이미설계를 완성한후 일전총독부학무당국에 그설계서류를 제출하엿다 총독부학무당국에서는 그설계를 도면으로 또는 수짜로방금세밀한 검토를 하는중이며학교당국에서는 비밀리에 기지를 물색하는중이다 비록 탄생한지 시일은 짧으나 여러가지로 융성에 융성을 더하는성남중학은 압흐로 빗나고잇서 그장래가 자못명랑하다

四百萬圓을肉迫

獻金、防空器材費、慰問金等

三月末現在의集計

지나사변은 드디어 장기전에 드러가게되여 황군의전과(戰果)가 날로확대되여가는이때 일반국민의 총후의단결도 이에따러 가일층 굿건해질뿐이여서 국방헌금만하더라도 삼월말일현재로 조선방공기재비로 삼백륙십구만일천칠백륙십구원사십칠전 황군위문금에 이십삼만사천오백이십일원칠십전 기타가 일만삼천팔백오십오원륙전 총합계삼백구십사만백사십오원륙십전이라는 호성적을나타내고잇다

俸給의折半獻金

부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 백륙번지에잇는 김병하(金秉廈)씨는 경기도 의생강습소(京畿道醫生講習所)촉탁 강사로 시무중인바 사월사일 전기 강사수당으로바든 금백원중 오십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여 관계자이동을 감격시키고잇다

진달래

戰地美譚

山西의一兵士가 嚴中尉에게十圓

북지산서(山西)○○방면에서활략중인 ○○부대 일등특무병(特務兵) ○○라고써서 금번에 귀환한엄(嚴)중위에게보낸 편지가경성부내잇는 군사후원련맹(軍事後援聯盟)에 보내여와다 이편지를 계원이뜨더본즉 그속에는 오원지페두장과

『열광적의 환송리에떠나온지가 벌서구개월이되엿슴니다 그동안에만흔 전우를이저버리엿스나 저는다행히 원기왕성하게 잇슴니다『천황폐하만세』를불으며 명예의전사를한 병사들의 유족을생각하면 눈물이나올지경입니다 총후여러분의노력에 보답코저 어모로 더욱 원기잇게 나가겟슴니다』

라고쓰고 오원은 경성으로부터 출정전사상병사의 유족들에게도 오원은 국방헌금을 하여달라고 하엿다는데 관계자들은 감격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鐵道局에서 포스터配布

兩大會압두고

철도국에서는 기원이천륙백년 기념 일본만국박람회와 올림픽 대회의개최를압두고 외국려객을 만히끄으러 드리기위하야 금강산을 …(和文)과 영문(英文)을 박여너흔 『포스터』일만매를 작성하엿는데 이것을 내외각지에 배포하리라한다

"國鐵疑獄"公判에

內田元鐵相等廿名出廷

五日午前十時東京裁判所에서

【東京電話同盟】 원철도대신 내전신야(內田信也)씨를 중심으로한 국철의옥(國鐵疑獄)사건의제일회 공판은 금오일오전열시오분부터 동경형사 지방재판소(刑事地方裁判所)에서 좌등(佐藤)재판장의 주심아래 개정되엿다。더욱 공판정에는 칠십명의 변호사가 입회하여 근래에드믄 큰공판이엿다。예심종결 결정서독이 끗난뒤 약한시간동안이나 검사의공소사실 진술이잇슨다음 사실심리에드러가 이십명의 피고는 모두사실을부인하고 정오에 폐정하얏다 차회공판은 오는 십이일에열기로되엿다。

移民中에새懊惱

移民選出의標準點과

그들떠난뒤空耕地處理가問題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에서하는 조선이민(移民)사업은 기정된계획에따라서 매진하고잇스나 이민하뒤에오는 공경지처분(空耕地處分)과 이민선출표준(移民選出標準)등의 여러가지 곤난한문제가 따라오므로 여기대하야 총독부에서는 명년도에 이것을 재검토(再檢討)할모양이다

조선 농민의 농토는 일호당 평균 일정오단 칠묘로서 내지의 그것에비교하면 약오단보가 넓은 셈이나 조선농업의 중심지인 남조선지방에는 겨우일정좌우에 불과하고 전라남도 (全羅南道) 가튼데는 평균구단보라는 조밀한통계를 보이고잇스므로 비교적 농토가 넓은서북조선과 만주에 남조선농민을보내는것은 경작토지의 균형으로나 국책상으로나 절대로 필요한시설이라하야 기대되고잇다 그런데 이민호의 공경지를 어떠케 처분하느냐가 문제일뿐아니라이민을 어떠한 표준에 따라서선출할것이냐? 하는것은 이민사업으로하야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되여잇다

즉 이민에 따라서 공경지(空耕地)를 나누어하는것은 농토단으로 허덕거리는 세농(細農)에게 토지를 분배할조흔기회이나 이공경지를 이민이 자작농이면팔아 버리고 소작농이면 지주에게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냥 방임하야 두어서는 상당히 자력이잇는 중농이상은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야 농토를 확장할수잇스나 세농민에게는 의연히 농토단에허덕거리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떠케 공평시키며 또한 이민선출의 표준도 이민지의개척을 고려하야 우수한 농민을 선출해서 보내는것이라당할것이나 이민뒤의 조선농촌을 생각하면 반드시 모범농민만을 보내는것은 고려할문제이다 이방면의 중용을 취하야 선출한다면 농가가가지고잇는 차금(借金)을 어떠케 처분하며 한마을에 몃호식을 선출하면적당하게 이민지와 고향파의 련락을 어느정도로 취할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라온다 이것을 정당히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금후 이민사업의 성불성이 결정될것이므로 이점에대하야신중히연구하지안흐면안되게되엿다

北支安全農村에 收容은明春부터

今年一年은建設工作

총독부에서는 북지당산 (北支唐山)에 약일백만원(금년에는 이십오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인안전농촌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농지까지 매입한후 방금 건설공사에 착수하야 방금착착 진행중이다

이 안전농촌에는 북지일대에 방황하는 조선인 부정업자일만오천명중에서 가장소질이양호하야 농업에 종사할가능성이잇는 사람일천오백명을 선발하야 수용할터이다 그런데 이북지안전농촌은 금년중으로 건설기타 제반준비시설을 마치고명년부터 비로소농민을 수용하기로되엿다 그런데금년에도 재류동포들이 대망의 안전농촌의 혜택을입기는 어렵게되엿다

危險한汗蒸

시내청엽정이정목팔번지리영운(李永運)(七十)이란노인은소화불량에한증이특효하다는말을듯고 삼일오후십일시경에 공덕정일백삼십번지 강주성(姜周成)의한증막에가서 한증을하다가 그만졸도하고말엇는데 원인은 심장마비인듯하다고한다

修理中家屋倒壞

人夫三名壓死

陜川草溪面下의慘變

【草溪支局特電】 오일오전십일시경에 경남합천군초계면 초계리(陜川郡草溪面草溪里)김기호(金基浩)의 집을수선하던중에 집웃지붕이 문허져서 때마침일을 하고잇든 전기홍(全基弘)이와박기만(朴基滿)과 그여페서놀고잇든 초계면 신촌리 (草溪面新村里)문무장(文武章)이는 불행이도 집이문허지는 바람에 그사이에 끼여서무참히도 직사하엿다는데 시체는곳끄내엿다고한다

누가眞犯일가?

삼일오후 여섯시삼십분경 부내 례지정(禮智町)…번지 김해족(金海族)자택에서 … 고속에 너어두엇든 현금…을 …

道議産業視察團

北支와內地에各派遣

경기도에서는 례년과가티 금년에도 도회의원의 도외산업시찰을 파견하기로 되엿는데금년에는 종래의 내지와 만주방면을 폐지하고 북지나를 넘어다음 아울러 두반으로 나누어파견하기로되엿다 이달하순에떠나두주일동안 각지를 시찰할예정이다

▲北支方面=睦頊相(安城)韓光鎬(高陽)元鍾常(京城)李鳳燮(長湍)金顯… ▲內地方面=曹秉相(京城)金顯祚(長湍)李寅求(楊平)金泰鎭(官選)

밀려드는旅客!

모자라는汽車!

끗철들며허덕이는철도

봄은 기차를 타고―북지대륙을향하는 려객의홍수 홍수…철도국(鐵道局)은 림시급행제일천칠백차를 봉천까지 연장운전하고각열차는 넘치는 려객의홍수에 대처키위하야 객차의증결에 진력하야 수송진(輸送陣)의 만전을 도모하고 잇는데 사일 부산(釜山)을 떠나는 제일렬차 『히까리』는 사백팔십여명 오일 아침부산착의제칠편중객은 일천…백구십오명이며 운전한 림시편에는 팔백십오명으로서 부산을 떠난림시급행렬차는 오백팔십명 제십칠렬차 『아까쓰기』는 삼백이십칠명의 좌석이 빈틈업는 만원이엿고 제칠렬차 『노조미』는 사백이십명의 초만원이여서 이러한여객의 홍수는 근래에 처음보는일로서 아직형편으로는 어떠케 완화할도리가업다고한다

市內에潛伏한 橫領店員被逮

대판부 동성천구본장서통(大阪府東成川區本庄西通)이정목 양풍양(豊洋)도매상좌도(佐道)상점점원 전중번부(田中繁夫)(二一)는 지난삼월이십오일 신호(神戶)기번통(磯通)『미하카와』에서 집금한 현금 일천칠백오십원을 횡령착복하고 … 월지량추(越智良秋)(二七)와 공모한 다음 북지방면에 … 심산으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부내 견지정(堅志町)아는사람의 집에 잠복하야 기회를 노리고 잇던중 대판부 경찰부의 수배를 바든 종로서원의 손으로 오늘아침에 체포되엿다。

총딱

경기도보안과의 조사에『불량』자동차가 사할오부나된다고▲그불량도 정도문제라하겟지만 모두숨수업는 면든것이라니 ▲복잡한네거리에서 가라마라고 정거를해도 말을안들을도모르는 자동차를가지고 말이되야지▲불량자동차의 외과(外科)채격검사가 교통사고방지의 대책이라면▲이런불량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게안방에게 신수이야반 영업방해의 내과(內科)진찰의필요는 업슬런지▲그러고 사고나도 운전수책임인가

曆

▲四月六日(水曜)陰三月六日 ▲寒食 ▲干支 戊辰 ▲日出六時十三分 ▲日入十九時○分 ▲日南中十二時三十六分十二秒 ▲晝間十二時四十七分 ▲月出 十時十分 ▲月入— ▲滿潮 (上川)八時五十五分 (下二)十一時五分

"金"使用의誤解一掃次 再次注意를喚起!

五日總督府서要綱二條를發表

지난일월사일 총독부령제이호로써 발표된 조선산금령 (産金令)제이십이조의 규정에의한 금(金)의사용에대하야 세간에서는 여러가지로 오해하야 제조판매업자나 일반수요자들의 적지안흔혼란이잇는모양인데 이에대하야 오일오후 총독부에서는 다음과가튼 요령을발표하야 세간의오해를 풀게하는동시에 다시 주의를환기하얏다

一、현재 가지고잇는 금의품위(品位)천분의 삼백칠십오(구금(九金))은 천분의 삼백칠십오)을 초과하는 금 제품은 판매하지못하는것처럼오해하는경향이 잇는모양이나 이법령은 제조를 제한하는것이오 이미제조한 수지품(手持品)의 판매는 하등의문제가업는것이며 또구금(九金)까지는 제조도상관이 업는것이다

二、총독부령에는 벌측이 명시되어잇지안키때문에 위반행위가잇서도 처벌되지안는줄로생각하는 경향이 잇는모양인데 총독부령의 위반자는 조선산금령의 규정에 의하야 오천원이하의 벌금에처하게되어잇스므로 위반치안토록주의하여야한다

고무工場또休業

京町瀨口工業서도突然無期休業을宣言

失職에우는二百職工

고무공장의 여파는 드디어 공장지대에까지 미치어 수천직공들의 수난시대가 도래하얏다 시내 경정(京町)일정목 뢰구(瀨口)고무공업소에서는 오일돌연 무기휴업을 선언하엿는데 이공장에는 남녀직공이백명과 여자직공구십명의 직공이 매일작업하여오든터로 오일돌연 회사측으로부터 무기휴업을 선언하엿다는 그들은 하로사오십전의 임금을바더 겨우 목숨을 연명하여가는 무산자들이므로 장차 압날의 할로의 생활도 계속할수가업다하여 동공장에 회합하여 방침을 강구중이라고한다 동공산관내의 어십여 고무공장에서도 속속휴업을 선언할 형세가 보이므로 공장지대의 수천직공들에게는 암운이

無産兒童教育機關

五個所에千八百名

【咸南支社電】 함남도지방과 동계를보면 삼월말현재 도내에잇는무산아동(無産兒童)교육기관은 오개소로서 수용하고잇는 아동수는 일천팔백사십오명이나된다 그들은대게 수업료는 무료로혹은 월사십전내외간으로 그중에서 소위극빈(極貧)자라고하는아동이 륙백팔십구명이나 된다고하는데 전연 교육의혜택을 바들수업는 어동들을위하야 그공적이실로 크다고한다

三成農場爭議

地主側依然強硬

調停委員會繼續進行

【沙里院支局特電】 이미 두차례나 본지에보도되여 일반이 의히알고잇는 문제의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사인면 삼성농장(三成農場) 소작쟁의(小作爭議)에 관한 소작료 인상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는 예정과가티 지난사일 오전열시부터 사리원(沙里院)경찰서 서장실에서 흑목(黑木)군수를비롯하야 삼성농장주의 십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중이엿든바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극비밀에부처고잇스나 들른바에의하면 오후다섯시에 이르도록 지주측의 강경한 반대때문에 하등의 효과도 거두지못하엿다한다 그러데 문제의 삼성농장주로부터 모농갑(毛農甲)에게 보낸 서류에 의하건대 신문등에 전하는것에 관심하지말고전책임은 지주가 명하는대로 소작료를 올리려고하엿다하니 서면을 보내것만 보더래도 지주측태도는 가히 짐작할수잇서 아직도 륙백여소작인의 호소가 해결을 엇지못하고 문제가아직 복잡한데 … 계속하야 … 예정이라고한다

昏醉된사람을

飮毒햇다고騷動

술먹고괴로워하는것을 양재물을 먹고 인사불성이된것으로 병원에운반까지시킨 『넌센스』한막이잇다 시내공덕정(孔德町)…번지 류신길(劉信吉)(…)은 원래술을 잘먹는사람으로 사일오후 여섯시경에도 어데서 술을만히먹고 자기방에 드러누어 괴로워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때마침외출하엿다가 도라와보니 방안한구석에 양재물그릇이 노혀잇고 류씨가 대단히 신음하는것을 보고 혹시나 양재물을먹고 자살을도모하지나 아니하엿나하고 꼿우근 고려병원(高麗病院)에 데리고가서 진찰하여본결과 단지술이 만취하여 술에못이겨 신음하는것으로 판명되여 한마의 희극이되엿다고한다

愛路青年團

和順青年들이組織

【鐵道局着電】『우리들의 도로는 우리들의 손으로』라는 표어아래 전남화순(和順)청년단에서는 오는십일에 애로(愛路)청년단을 결성하기로되엿다 이것은 그들의 자발적으로 발기하게 된것으로 도지사 군수 면장 각 소학교장으로부터 만흔 격려와 찬사를밧고 십일 화순군청에서 결성식을 거행하기로 된것이다

이애로청년단이 생기게된 유래를드르면 이러하다 철도국에서 직영하고잇는 전남지방의자동차로선 이백칠십팔"키로"는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해빙기(解氷期)에는 길이몹시 나빠서 교통사고가 자조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는데는 도로를수선하는수밧게 다른 도리가업고 또한 지방발전을 위해서도 속히 수선완비를 시켜야 되겟다하야 화순지방청년들은 서로 일치협의하야 이번에 분발하게 된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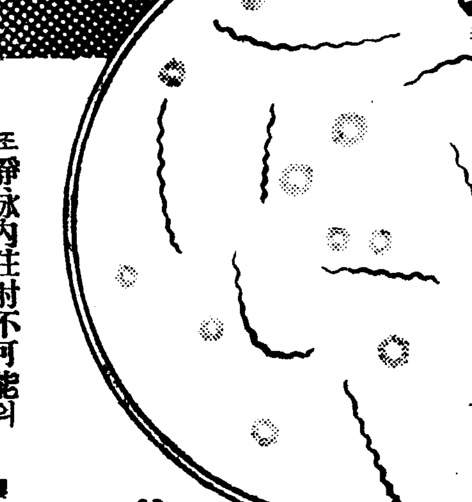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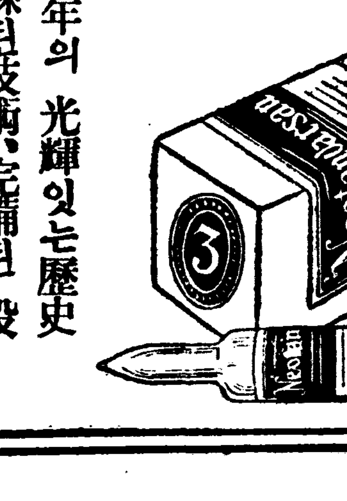
결성식을 거행한 뒤로는 철도국측과 협력하야 지방발전을 위하야 노력하며 일방으로 애로(愛路)또는 교통에관한 좌담회를 … 회장은 … 정하기로하고 그러고 단장은 각소학교장으로 그러고 부단장은 각면장으로정하기로 예정하엿다한다 조선에서는 드물게 보는단체이어서 그들의 장래는 자못 기대를 갓게한다

魔의길목!

驀進中의"노조미" 어린두生靈을또蹂躪

병어리소녀가 갓난애업고놀다 水色—陵谷間鐵道길목서轢死

【水色支局電話】 오일오후 네시팔분 부산(釜山)을 떠나 신경(新京)으로가든 급행열차 "노조미"가 수색—릉곡(水色—陵谷)사이에 잇는고양군신도면 덕은리(高陽郡神道面德隱里)길목에서 때마침 그동리삼십구번지 서명식(徐命植)의 셋재딸벙어리 금순(今順)(七)이가 자기동리산(山)십일번지에 사는정순선(鄭順先)의둘재딸경애(敬愛)(三)를 업고 놀다가 전기"노조미"열차에 치여 직사하엿다 현장은 피로물드럿다 그리고 이사고때문에"노조미"는 오분가량이나 정차햇다가떠낫다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國產品の嘆矢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獎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여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豫防에適합
또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테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 熱帶苺症等 에도 特効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ギフロン의 選用을願함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大號(〇・九〇瓦)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奉天市大和區平安町三番地
NTC

中部版

廿七個公立小學校에 轉入志願五三五名
缺員은六百六十九名이나 學年따라過不足의現狀

부내 각공립소학교의 입학은 이미 지나갓스나 이제 남은것은 해마다 시골서 부내로 이주하여오는 사람이 만흔때문으로 답지하여오는 전학희망생이문제이다 사실 경성부학무과에서 그접수를 마감지엇는데 그총지원자수가 일학년에 여섯명, 이학년에 일백이십일명, 삼학년에 일백일명 사학년에 일백팔명, 오학년에 일백삼십칠명 륙학년에 륙십이명으로 총지원자수는 오백삼십오명에 달하엿다 이에 각학교의 결원을보면 일학년에 일백십칠명 이학년에 일백이십칠명 삼학년에 오십구명 사학년에 일백이명 오학년에 일백십일명 륙학년에 일백오십삼명으로 합계륙백륙십구명에 달하야 그지원자보다 초과되여잇다 그러나 삼, 사, 오학년은 자리가 부족이다 이지원자를 통하여 거리를참작하야 각학교에 배정한후 유입에 그배정학교를 통지하여 줄터인데 전학고사는 오는 구일에하기로 되여잇다

전학지원자가 정원보다 만흔학년이잇스나 이것은 거리관계로 특히 녀자가만허서 아주먼거리에서 다니기를 희망치안는관게도잇서 결원이잇는데 거리를불구하고 다니겟다는 사람은 너허준다고하며 전학정원이 지원자보다넘는다고해서 지원자전부를 그대로 무조건수용할수는업는터이므로 그학년에서 배워갈수잇는 실력이잇는가를 고사하기로된것이다 각학년에따라 남녀별지원자수와 각학교의각학년 남녀별결원수를 보면 다음과갓다

▲各學校缺員數 (右便은男子左便은女子)

公立小學校名	1	2	3	4	5	6
▲校洞		一三	一	二		五
▲齋洞		一六	三	一一		三五
▲孝悌		二		一	二	九
▲光熙	五	二				三
▲淸溪		四一	四一	六	一	二
▲蓬萊			一三	二	六一	二
▲梅洞			五	五	一	七二
▲渼洞		六一		四二	四	二五
▲麻浦		一五	一		一〇	一〇四
▲德壽		四一	一	二		六八
▲錦町		八七	一一	三三		二二
▲昌信		一	一	一	二	二
▲壽松		七		一	一	二
▲孝昌	二四	一四	一	六一	二五	一〇一〇
▲芳山		五二		一四	八四	四二
▲淸雲		二一		一一		一五
▲竹添	四	一一	一一		四	一
▲惠化		五	一		五	一
▲舞鶴	三三	二	九六		三二	
▲龍江		八六	一	一		二
▲漢南	七	八	一	三	三	四
▲鍾岩	八二	二	一		一	一
▲阿峴		二一	一	一五	一六	一
▲文新		一	一	一	一	
▲鞍山		四	六二			
▲淸涼	七二	三六				
▲西江	二	三六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學年別男女志願者數

學年	男	女	計
1	五	一	六
2	[illegible]	三三	[illegible]
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職業紹介所의 三月中就職二百名

【仁川】 인천부립직업소개소(仁川府立職業紹介所)의 지난삼월중 성적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구직자는 삼백이십명에 구인(求人)이 이백팔십오명으로 그중 취직자가 이백십팔명이란바 전년동기에 비하면 약오분 증가의 조흔성적을 보여준다한다 그중 취직종별로보면 직공이삼백칠십 호내사용인(戶內使用人)이 칠십명으로서 그외는 점원 상점원에 각각 어십여명에 직공과 호내사용인이 수위를 점령하여다 한다

市內東新學校 夜間商科新設
普通部를長沙町으로移轉

시내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 동신학교(東新學校)에서는 이번 신학기를 당하야 그의교상과만은 장래유적을 목표로 교외도화정(桃花町)으로 교사를신축이전한다고한 동교의 보통부와 야학부도 시내장사정(長沙町)팔번지 벽돌이층교사를 새로장만하야 신학기부터 옴기고로 특히신학기부터는 야간상과(夜間商科)를 설치하고 육십명신입생을 모집할예정이라하며 학년에의하야 금년은 보통과아동은 모집중지하엿다고한다 (사진은 장사정신교사)

大現地區"區整"의 區域概要를決定
起債認可指令은今月안으로 五月初에施工地域告示

경성부 공영부에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영등포(永登浦) 돈암(敦岩)의 양지구는 사업에 착수하야 착착 공사가 진보되고 잇거니와 또금년에 착수할 대현지구(大峴地區)의 토지구획정리구역은 아현정(阿峴町)직업학교 부근에서 경의선 신촌(新村)역 어플 지나 창천정(滄川町)에 이르는 도로의 양편일대로서 아현정(阿峴町) 북아현정(北阿峴町) 대현정 창천정(滄川町) 로고산정(老姑山町) 신촌정(新村町) 염리정(鹽里町) 동교정(東橋町) 서교정(西橋町) 신수정(新水町) 대흥정(大興町)의 각일부로 약오십만평이 결정되엿다 공비백만원을던저 금후 삼개년계획으로 사업을해나가기로 되엿는데 이미 그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작년십일월중순일에 나왓고 그기채인가는 느저도 이달안으로는 나올터이므로 그지령이 나오는대로 오월초에 시공지역을 고시하야 지주의 종람에 제공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가환지(假換地)의 발표는 오는 시월경이라고한다

千五百萬圓減!
輸出入減·移出入全無
閑散한三月中仁川港貿易總額
比前年同期

【仁川】 삼월중 인천항무역총액은 육백이십삼만삼천오백구원으로 작년동기에비하면 일천사백구만일천사백오십삼원감소로 놀날만치감소를보엿다한다 그리고 수출입에 잇서서는 쌀 철물(鐵物)등이독점을 하얏다는바 쌀은 일백이십삼만일천오백이십팔원이고 철물은 일백팔십구만팔백구십삼원 이라하며 이출입(移出入)에잇서서는 특기할만한것이업고 미미하야 전무상태라 한다

八尾島바다에서 峴底町青年投身
救援줄을던저도拒絶

【仁川】 삼일오전 열한시반에인천항(仁川港)을 출항하야 마산(馬山)으로 향해가든 부천통운조합(富川通運組合)소속선 제일통운환(第一通運丸)에 탄 선객가운데에 경성부현저정(京城府峴底町) 사십륙번지에 현주소를 둔 김옥산(金玉山)(二二)이라는청년은 팔미도(八尾島)부근에서투신자살을 하엿다 그는 팔미도근해에서 갑판(甲板)으로 나가서 옷을버서노코 물에뛰여드러가는것을 선장이발견하고 항행하는배를 정지코 줄을던저주엇는데 줄을잡지도안코 손을내저오면서 구원도 필요업다는것을 표시하엿스나 조수가 급하여서 수부 김홍길(金洪吉)군이 뛰여드러가서 수사를하엿스나 행방을알수업섯다한다 자살한 원인도 전연알수업다

龍仁選出道議補選

용인군(龍仁郡)선출 도회의원 심영섭(沈英燮)씨는 일신상사정으로 사월사일부로 의원을사직하게되엿다 그공입으로는 차점자인 조모(趙某)의 보결당선이예상되나 조씨는 목하 선거위반혐의로 용인서에서 취조를받고잇는중이어서 그귀추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결원보충을 보게될것으로 판측된다

國婦興仁分會 分錢모아獻金

경성국방부인회 흥인분회(京城國防婦人會興仁分會)에서는 회원들이 절약하야 용돈의일부인으로서 부수히 활동을하여잇스며 또 매월을 이용하도록가 남은 일전식을 저금하야 모은돈 백원을 사일에 경성군사후원연맹(京城軍事後援聯盟)에 기부하얏다한다

仁川府馬 行人을蹴傷

【仁川】 삼일오후 네시삼십분쯤 인천 룡강정(龍岡町)일번지 부근에 오물을 소제하려간 부천이부 김구영(金求榮)(三〇)이마 차의말을 풀어노코 기름을 마차에 실으러할때에 별안간에말이뛰여다러나서 그곳을 통행하든 룡강정 일번지에사는 오광옥(吳光玉)(二七)과 부내 대화정(大和町)사는 안용길(安龍吉)(一八) 두명에게 뛰여드러 두사람의 안면과 왼쪽다리를 발버서 중상을 입혓다 전치까지는 오주일간걸린다고한다

女流名唱競演 水原에서開催

【水原】 수원주조회사와 상회상회에서는 본보수원지국후원아래 신춘시민위안으로 경성삼대기생권번의 녀류명창과 수원화성권번기생 조연을 청하야 육일밤 칠일밤 이틀동안 수원극장에서 여류명창경연을 행할터인데 이번 명창들은 전부가 신진명창으로 류행가와 각종으로 능도하게 될터이다 벌써부터 인기는대단하야 당야의 성황을일울것을기대하고잇다

自轉車商을集合 人道使用禁止를示達
本町署에서管內業者들에게

부내본정서에서는 사일오후한시부터 관내에잇는 자전거포주인 칠십륙명을 동서호시실에모아노코 종래그들이거이 공공연하게인도를 사용한대하야 아프로는 교통도덕상으로는 서가미관상 일체인도의사용을 금지한다는달시를 하엿다한다

醉客轢死

【一山】 고양군 중면마두리(高陽郡中面馬頭里) 설금순(薛今順)(三二)이란 사람은 지난삼일오후 여덟시반쯤되여 일산발 경성행 렬차에 참혹히치여 죽엇다 원인은 일산장에잇다가 술이대취하야 집으로도라가는길에 일산역을 지나 방아까시고개 모퉁이에서 기차오는줄도모르고 가다가 머리를치여 직사햇다한다

全朝鮮商工會議에 仁川서도代表出席

【仁川】 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에서는 오는칠팔양일에 군산상공회의소(群山商工會議所)에서 개최될 전조선상공회의소 사무협의회에 출석키위하야 인천상공회의소 조사과 서(西)서기가 휴일인칠일에나 군산으로 향하게되엿다한다

地方人事

▲金亨鎭氏(前江華城內公普小學校訓導)蘭井簡易學校로轉任人事次本社江華支局來訪
▲木下一夫氏(江華城內公普小學校訓導)新任人事次同上

農家實情을參酌 自作桑田을奬勵
京畿道産繭方針再樹立

총독부에서는 현금수업농가에 따라 농가갱생을 꾀하야 대정십사년부터 십오개년계속사업으로 꼬치생산(産繭)백만석계획을 세우고 이래농가에서 가장중요한 부업으로 양잠을 장려하야 왓스나 십사년에 계획이만기되엿스나 그실적은 겨우당초계획의 칠할에 지나지못하며 경기도가튼곳은 더욱성적이나빠 일년산견예정약 십만석에대하야십이년도 실적은 겨우오만석으로 계획의반분도못되는 부진상태이다 그래서 도농무과에서는 당초계획 재검토를 하기로되엿다 즉 십일년도부터는 종래의 장려방침을 일변하야 당국에서 농가의실정을 잘고려하지안코 억제적(抑制的)으로 장려한 방법을버리고 산견증식계획을 농가갱생계획에합처서 농가의실정에 적절한장려방법으로 고처실시한 결과 성적이양호함으로 이레동안의 시험기를마치고 십삼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실시를하기로되엿다 그계획내용으로는 양잠농가에 제일부족한 자작상전(自作桑田)구입비(購入費)의 일부를 보조하야 만히설정케하는 것으로 제일년도인 금년에는 진위(振威)장단(長湍)안성(安城)포천(抱川)군내에 각일정보식과 부천(富川)연천(漣川)여주(驪州)군내에각이정보식 합십정보를 일정보 평균이백원식의 보조를주어 동구입케하엿는데 보조액을 뺀 구입비는 전부 금융조합으로하야금 대부케하야 오년내지십년간에 양잠수익으로 상환케하얏다 이계획은 한남지방에서 실시하고잇는 양잠소작조합(養蠶小作組合)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자작농창정의 한조류로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보조총액을 늘려 적극적으로장려할방침이라고함으로 조선에서 처음보는 이계획의 장래는 기대와주목을 끌울게한다

南總督 江華島視察 來八日에

【江華】 남총독은 오는 팔일강화도를 시찰하고 당일로 귀환할예정이라고 한다

祝賀奉告祭 江華서도盛大

【江華】 획기적인 양대제도실시로 강화에서도 삼일에성대한행사가 엿섯다 아침열시반에는축하봉고제가 잇섯고 이어서기행열과 축하연이잇섯다

永登浦私立校巡訪記 ④
湧興學院篇
先生은無報酬로 生徒는晝勤夜學
學齡超過者收容이特色

지금 생각하여도 소름이 끼칠만한 일은 십오년전 즉 대정 십사년 여름에 생긴 을축년 수재일것이다 그 당시에 경성부근에서는 이촌동(二村洞)이 제일 참혹한 재해를 입엇다 그때에가장집물을 물에다 떠나려버리고 생도를 일흔재민은 수천명이엿섯다 그재민들을 위하야 행정당국에서도 구제할방법을 강구하고저 애를썻는데 결국로량진(鷺梁津)뒤人산미테 국유지(國有地)수천평을 빌려주어서 그들재민을 수용하게된것이다 이것이 곳부흥촌(復興村)이다 근근히개생의 첫거름을 드듸게된부흥촌 주민들은 비록빈곤에 골몰하게 된다드라도 사랑하는자기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걱정하게되엿다 그래서 그동리 유지리기윤(李基允)씨의 활동으로용흥청년회(湧興靑年會)에서 돈사백여원을 모으고 또그밧게다른동리주민들로부터도 의연을바더서 용흥학원을 창립한것이다 기지는 경성부로부터 대부를바다서 건평(建坪)사십여평으로목조(木造)이층교사를 지은것이다 현재의 교사는 그때에 지은건물이다

◇—◇

교무주임 서진룡(徐鎭龍)씨를 차즈니 기자를 반가히마지하야 학원의 현지상황을 이야기하여준다 그의 이야기를드르면이학원에서는 학령(學齡)에 초과한 아동들에게 입학의 우선권을주며 교원은 모두 아무보수도안밧고 헌신적으로 일을보고잇다한다 금년도의 영등포공립보통학교구역안에 초등학교 모집인원과 지원자수를 살펴보면 지원자초과수는 겨우 사십여명에 지나지안는다한다 그러나 이와가티 표면에 나타난 수자로는 초등교육확충안에 따라 입학난이 다소 완화되엿다고할수 잇겟지마는 그리면을한번 더자세히 살펴보게된다면 학령을초과한 아동에게나 다른곳에서 이사하여와서 살게되는 사람의자제의 전학에는 해당한조건이 되지못한다 그러므로 학령초과아동에게 입학의 우선권을준다는것은 다른데서는 별로히 보지못한별다른 방침이여서 이학원의 자랑거리라 할수잇다 만약 초등교육확충안대로 당국계획이 순조로 진행된다면 몃해후에는 학령아동의 입학난은 자연히 업서질것이다 그러나 학령을 초과한 아동들의 처리문제를해결할 업무는오로지 사립학교가 맛게될수 밧게다른도리가업슬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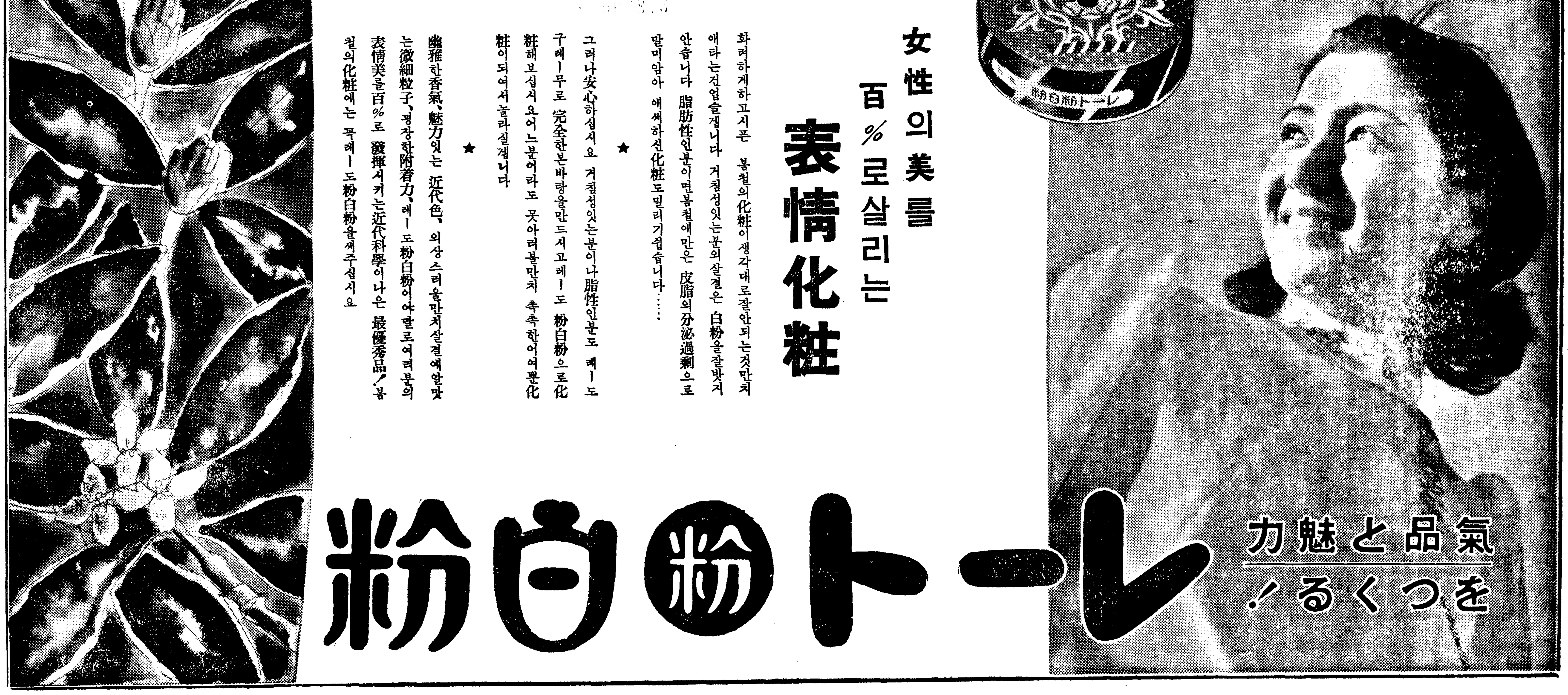
◇—◇

현재 이학원의 재학생은일백팔십명인데 그가운데서 유치반(幼稚班)이 사십명 박옥자(朴玉子)한무옥(韓武玉)두선생이 담임하야 주간에가르치고 그밧게는전부 야학으로 되여잇다 야간교수를 하게되는 원인은교실이부족한탓도 잇지마는 생도들의 대부분이 낮에는 공장에가서로동하고잇는 관계도 엿스며또는 전기 서무주임이외에 리기환(李麒煥)류문수(柳文秀) 김기창(金基昌)등 제씨가 모두 집도국에서 근무하고잇는 분들이므로 부득이 야간교수를하게되는 터이라한다 금년에도 일학년생오십명과 그밧게보결생 약간명을 모집하게되는데 만이희망자가 상당하리라 입학원서를 밧게된다한다 (사진은 용흥학원의교실광경)

=永登浦支局記者=

永登浦又新小學 三訓導轉勤

【永登浦】 금번 경기도초등학교 직원이동에의한 영등포우신소학교(永登浦又新小學校)훈도 이강민(李康敏) 조기순(趙己順) 어



新劇運動의開拓者 延鶴年氏永眠
葬儀는六日午前十時

현대는 조선극계(朝鮮劇界)의 메왕(劇王)으로활약하든 일면 조선중류의 신극단체 토월회(新劇團體土月會)창립자의 일인으로 신극수립(新劇樹立)에 잇서 공헌한바 만헛스며 작년에는 중앙무대(中央舞臺)라는 극단을 조직하야 꾸준한노력을 계속해오든 연학년(延鶴年)씨가 사십여일을 중이염(中耳炎)으로 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입원가료중 불행히 작사일오전팔시반 동병원에서 삼십구세를 일기로 영면(永眠)하엿다

略歷

씨는명치(明治)삼십삼년경성계동(京城桂洞)에서 연준(延濬)씨자남으로 출생하야

경성제일고보(一高)를 거처 동경고상(東京高商)을 중도에나와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조선극단을위한 신극단체 토월회(土月會)를 발기할때에 갑부의아사람으로 활약해오다가 토월회가 박승희(朴勝喜)씨로부터 직어허극단이되자 김복진, 안석주(金復鎭, 安碩柱, 金基鎭)씨등으로더부러 동회에서 나오게 되엿다 그후 장시 리화전문(梨專)에서 교편을잡엇고 대정십오년 창신동(昌信洞)에 고학생(苦學生)을 유영(留英)하든 고학당(苦學堂)을 창설하야 이에 전심노력하엿다.

그때 이고학당에서는 중등정도의 정당한 교육을 식히잇지 가르켯다 어떠한계 일보신이중에는 윤종덕(尹鍾悳)씨 대동양업(大同釀業)의 이종만(李鍾萬)씨등이엿다.

그러나 어고학당도 여러가지 경영난을 맛나게되어 할수업시 피눈물의 오년의역사를 남기엿고 그후종합예술(綜合藝術)을 조직하엿스나 일회공연으로 끗낫다 씨는다시 실업계에투신하엿다 그러다가 작년소화(昭和)십이년유월 극단중앙무대(劇團中央舞臺)가조직되자 씨는 이극단에 간접적관계를가지고 후원해오다가 다시 중앙무대의조직을 변경하는동시 그일체의 경영과 연출을 씨가 책임지기로 되여가지고 혁신제일회공연(革新第一回公演)으로『젊은하이델베르히』를 위시하야『카추一샤』조선생활『촌선생(村先生)』순회(巡廻)『쾌걸흥부』청조(靑鳥)등을 가지고 부민관무대(府民館舞臺)를 장식케하엿다

씨로서청조(靑鳥)가중앙에서의 최초공연이요 이공연후 지방순회(地方巡廻)로 남선지방을향하야 대전, 이리, 군산(大田, 裡里, 群山)등지를 거처 전주(全州)에 왓슬때는 씨의 신병은 점점 악화됨에따라 씨는 하는수업시 지난二月二十三日 상경하야 대학병원에 입원치료중이엿스나 병세는 차도가업시 드디어 작일별세하엿다. 씨의 유족(遺族)으로는 부인황귀경(黃貴敬)씨와 장남명의(長男明義)차남상의(三男尙義)와 세살된 장녀『루미』의 삼남일녀가잇다

영결식(永訣式)은 금육일오전십시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六日午前十時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거행하며 장례는중앙무대장(中央舞臺葬)으로장지(葬地)는 홍제원(弘濟院)이라고한다

演藝

歐洲映畵大異變!
"聖林"打倒策計畫中
英、佛、獨、伊四國이協定하야

【로一마發同盟】구주정국(歐洲政局)의대파란(大波瀾)을예상하는영 불 독 이(英佛獨伊)의사대열강국(四大列强國)사이에는 아직도 외교협약체결(外交協約締結)이 엇지나될던지 의문중에잇는 한편영화계(映畵界)에잇서서는 한거름몬저合선하야 영화사개국협약(映畵四國協約)이 성립(成立)될모양이라고한다 이러한사실이 한번『포포로、로一마』신문에 보도(報道)되자 갑작이 큰『센세一슌』을 일으키게되엿다

그런데 이협정의 원목적은 미국의『헐리웃드』영화를『구라파』각국시장(各國市場)에서 몰라내자는 매우놀랄만한 전투적정신(戰鬪的精神)이 팽일(膨溢)하야잇는 사실이 판명되야 더한층 물의(物議)를이르키게되엿다

그런데 어떤 이협정체결운동(協定締結運動)의 주창자(主唱者)는『헐리웃드』타도(打倒)

세계최대영화국건설(世界最大映畵國建設)

여라는 二대『슬로칸』(綱領)을 가지고나가는『로一마』영화사라고한다 여사실은 극비밀리에 부처가지고와서 잇는데라가 연맹(聯盟)을 맹그러가지고 자장 훌륭한영화를 작성하야서『헐리웃드』의 초특작작품(超特作作品)과 대항(對抗)할 목적이라고한다

그외 '노동법(勞動法)'을 적용하라고 조사하는동이라고한다

이러한 무제한하고 하는노동은세계다른나라 영화제작판계자도한가진모양인데 요지음 미국에잇는『와一너』촬영소배우조합에서는 제작자에대하야

하로에여덜시간노동제(勞働制)를 요구하라고 의논중에이라고한다 어것은 계약한배우나그날그날 시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자유출연자(프리、란서一)도가리대우하도록 히망하게되리라고한다。

스포一츠

東西對抗과中等大會에
朝鮮代表派遣計畫
活氣띄울今年蹴球界

大日本蹴球協會의 今年度全國代議員會는 來十日午前十時부터 東京新橋驛構內同協會事務所에서開催될터인데 이날의 中心議題는 來八月에열리는 全日本中等學校蹴球大會와및 十二月에열리는 東京選拔蹴球對抗戰에對한 朝鮮의參加希望提案으로 前者는 年齡制限으로 出場中止되어온 朝鮮中等代表의 復活과 또後者는 現在의東西對抗戰을 더욱擴大시켜 朝鮮選拔을加하야 試驗의 三地域對抗이라고稱하는 朝鮮,關東,關西의三地域對抗戰一그戰으로하자는二提案인바 朝鮮蹴球協會에서는 常務理事李榮敏氏가 同代議員會에 出席하야 前記提案을 通過시키도록 盡力할터이라한다 提案이實現된다면 十年前인 昭和二,三年에 崇中과平高普가甲子園에出征하야 無敵陣의 勇名을떨치든前例에서어 어느學校가 朝鮮代表로出場케될는지 在日울이끌고잇스며 東西對抗戰에는 本社主催의 第一回都市對抗戰을마치고 各種大會의出戰選手中에서 가장優秀한選手만으로 朝鮮팀이 編成될터인데로 今年度蹴球界는 旣然活氣를띄울것으로期待된다

全關東蹴球陣容

來七日부터 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할 英國『어스린돈·코린칸』蹴球團과 對戰할 全關東軍의 陣容을 二日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는데 朝鮮選手四名은 補缺으로되엿다

◆FW=加茂正(早大)加茂健(早大)加茂正五(早大)...

米國俳優組合
待遇改善要求

영화를 제작하는데 개봉할날짜가절박하다던지 천기가 불순한관계로 강행촬영(强行撮影)이나또는 철야촬영(徹夜撮影)하는것은 당연한것가티 생각하고엇기때문에 배우를 비롯하야 어예관계한사람들의건강에 막대한영향을 끼치는까닭에 내무성공장과(內務省工場課)에서는 영화촬영소(撮影所)에도 공장법(工場法)을 적용하라고 조사하는동이다

나치스映畵進出
푸랑코政權의스페인에
去勢當하는佛蘭西映畵

『스페인』(西班牙)에『독일』세력이 진출되든것이 문제시되여잇는 요지음『독일』의선전상(宣傳相)『꾀벨스』씨는일마전『독일』의 영화제작업자(映畵製作業者)에 대하야 독영화를『스페인』에 대대적으로 선전하야 영화의 권리를 가지도록 적극적 노력하기를 통고하엿다는 지령(指令)이나려 구라파영화게에 큰말성거리를 어르키고잇다。

독일영화제작업자들은 벌써부터 선전상의 통제(統制)하에『나치스정신』을 고취하는 외국수출영화제작에 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하『어스파노』회사의『세비라의 이발사(理髮師)』『우파』사의『앙다르사의밤』등을 박기에 착수하엿다

"라스프친"映畵化

『腰間의幸福』『마르셀·렐르비에』등 영화감독『마르셀·렐르비에』는『罪와罰』『레·미제라블』등에주연한『아리一·보르』를 제작로서야 제정노서아(帝政露西亞)시대의 역사적괴승(怪僧)『라스프친』『괴엘·라샤르』으로 분장시키고 『라스프친』영화를...

演藝消息

『漁火』로케一슌

東海岸巨津으로 極光映畵製作所에서 第一回作品으로『漁火』를 撮影키로하야 關係者一同은 四日午後十時京城驛을떠나 東海北部線沿岸에잇는 巨津으로 出發하엿다 로케一슌은約三週日間豫定이라고

더욱 네런이 이러난이후『프랑코』정권의 정치적『스페인』에는 불란서영화는 차츰차츰 자취를 감추게되엇스므로 그대신 독일영화가 무대를차지하게되엿는데 특히 독일영화의 진출은 선전적원조(文化的援助)를 푸랑코정권을 통하야 극히 유리하게 보도되엿다

明朗한 나무꾼
（本社主催流行歌懸賞募集三等當選） 文 宵 羊

一、짐작에 조와서 마음놓아하면 서울선 놓마루 너같라주마 唄主집 자지에 닭잡아가면 西洋놈 왜기를 상라고오지 호 에헤야 데헤야 어서추어라 런 한나절 기우러네 어서추어자
二、개천에 용낫다 두고보렴마 ...
三、내말만 드르면 너송장하지 도깃소 서너필 네차지된다 ...
四、여洞里 구장도 내가될텐데 요자리 놋치면 너후회한다 ...

★옛날人氣俳優의後日譚

지난날 눈부시는 연꺼풀 가진은 『스크린』우에 그여왕들과그들대로 잣나이제 면사탐을 엷어보기로하자。

한때 동그란 눈섭의『잇든』를팔아 한계의 새로운 여성타입을 만들어내든『클라라보오』는 남편의 목장을 빼저나와서 새로운 장사를시작햇다한다 즉『바인스러드드』라는곳에『레스토랑』을 내엿는데 그이름어그럴듯하다。가로대『잇트』一

×

벌서 옛날의 거버린 위대한스타一『로돌푸 빠렌티노』一그의 『오』 촬영소바로뒤에엇는데 시체는 박물관처럼 큰건물속에 대리석으로 편숙에 모셔두엇다。

지금도 오히려 꼿다발어 잇새어서 그의관 앞 그리워지다하니 실로 놀라운 열정이아니냐 『아스퍼레온』이라는데 그박게『헐리웃드』에잇는 어떤조그만 공원에 그를 추어해서 조상(彫像)을 세웟다。

그런데 그여편 웅장하게잇고 그웅장한속에서 흙과 어께(肩)가 주식여요다。

『헐리웃드』란데가 원악들든곳어라 로맨쓰가 만코 거기따라 결혼하는가 하면 다시 이혼을 해버려지안코는 견디지 못하는것어 그들의 기질여다。

작년중에는 어쨋든 여든세쌍의 남녀가 결혼햇는데 그중에서 겨우 마흔아홉의 부부만이혼 하계된것은 퍽으나 다행하얏이라한다。

라디오

六日（水曜）

◇正午（東）時報 伊太利名歌集（레코一드）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簿（二）『消費의合理化』梨專 金東珠
◇同五時 럭비一試合實況(國語)一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一 立敎大學對全普成
◇同六時 어린이科學『봄물』朴萬奎
◇同六時三〇分講演『林과人生』城南中學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演『保證準備의限度擴張에對하야』(二)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京城）『花祭에對하야』神父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平壤）『花祭를當하야』中專 金敬注
◇同八時 新作漫談（京城）『봄은 古木에도』鄭昌允
◇同八時 라디오드라마（平壤）『아름다운밤』一幕一컨레一로프 李悳興

◇同八時（東）室內樂（定期演奏第三回）피아노五重奏曲A長調『鱒魚』作品一一四 슈一베르트作曲
◇同八時三五分 古談『寒食과傳說』 申 靑 吾
◇同九時五分 歌詞 一、白鷗詞 二、길軍樂 安 鶴 仙 張 姬 淑 金 永 根 大笒 金 一 宇 杖鼓

第一放送
◇午後六分（東）合唱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四〇分（東）講演

七日（木曜）

◇同八時（東）室內樂
◇同八時三五分（東）長唄
◇同九時（大）物語
◇正午（東）時報（레코一드）行進曲
◇午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篇(四)『生活費이야기』梨專 金東珠
◇同六時 幼年劇『꼬박』安國幼稚園兒童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指揮 趙 錦 子
『賓社會의새일군들에게』

◇同六時三〇分 講演『보건과昆虫』 大豫生物學敎室 趙福成
◇同七時三〇分 梵唄 擧佛、召請、眞言、由致、請詞、歌詠、歎座偈、茶偈、眞言勸供 開運寺僧侶
◇同八時 이야기『灌佛節』中央佛專 朴允進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布施太子』三幕一金泰治作 明星聖劇글럽 演出 任尼宰
◇同九時 經濟解說 高永煥

第一放送
◇午後六時（札）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演（城）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謠曲

八日（金曜）
◇同八時四〇分（東）合吹
◇同九時（大）物語
◇午前一〇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一中央佛專
◇正午（東）時報
（東）佛敎音樂 佛敎音樂協會聖歌隊 指揮 橋本秀次 獨唱 高木淸
◇午後〇時三〇分 뉴一스 피아노伴奏 渡邊千歲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篇（五）梨專 金東珠
◇同六時 이야기『문치님』李淨光

◇同八時四〇分（東）合唱 마귀어受難樂 바하作曲 大日本聯合合唱團
樂浪라디오드라마俱樂部 二、唱劇調 古江山 沈淸歌中 一、短歌 萬古江山
歌手 丁元燮 李東伯

弟原作 配役 동화콘드…李義昌 카롤로스…沈恩暎 엘레一나…金敬樞

五月十五日來征할
比律賓籠球團
普專、延專과決戰

籠球의珍客…比律賓의 選拔籠球軍이 朝鮮에來征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一行은 四月下旬日本에到着하야 東京、京都等地를 轉戰한後 五月十四、十五、十七日의三日間 京城에서 全京城、普專、延專과 對戰할豫定이라한다

少年은 맨발(跣足)으로서도 百米에 十一秒의 好記錄을 지엇스며『센반』이라는 投槍選手는 五十米를 投擲하엿다는데 어네들을 正式으로 練習시킨다면 將來는 刮目할바가 만타고하엿다

올림픽放送準備

日本放送協會에서는 東京、札幌兩大會의 國際放送에 注力하고저 各國放送局과 協議하고잇는데札幌大會에서는 十八個國二十의 放送協會中의 加奈陀、芬蘭、瑞西、伊太利、丁抹、에스토니아等은 參加하기로 確定되고 英國、獨逸、波蘭等은 未定이라는데

國、伊太利、丁抹、에스토니아等은아즉 回答이업다 獨逸은 東京大會에 對하야 自國 選手가 參加한 競技譜決勝과 決勝、開會式의 實況放送을 行할것과其外에도 錄音放送도 兼行하게되여 두가지의 準備를 希望하고잇스며 마라손、요트、뽀一트、自轉車等의『레一스』에는 移動放送을 行할것도 熱望하고잇다

體操의始祖린그祭

明年七月『스톡홀름』에서 瑞典體操의 始祖『린그』氏의 百年祭가 嚴肅한가운데 擧行될터인데 瑞典皇帝『그스타프』五世陛下를 名譽總裁에 奉戴하기로 內定하고 日本瑞典公使栗山茂氏에게도 瑞典體操聯盟會長『호름스톰一』氏로부터 名譽委員에就任하야 주기바란다는 懇請이엇섯다 日本體操聯盟에도 正式招待狀이 發送될 터인바 日本體操界와 瑞典體操와는 거픈關係를 맷고 엇스므로 此際에日本의 體操體育의 現狀의『팜프렛드』를 發送하는것이 조타고하야 平澤日本體操聯盟會長에報告가잇섯다 한다

◀HB=野(早大)田中(東大)一宮(慶應)播磨(同)森(同)
◀FB=菊池(東大)鳥(同)
◀GK=津田(慶應)

旅行을마치고 巴里에 歸還하야 二日 體協에 다음과가튼 興味잇는 報告를하엿다 어에依하면『세네갈』土人의生活과 體格으로부터 推察하야『偉大한 未完成品』이 潛在하여엿다는 豫想은 的中하야 『산겔』이라는 當年十六歲의

有望한黑人選手

【巴里二日發同盟】米國의 黑人選手와 對抗하고저『아프리카·세네갈』에서 黑人競技者를 物色中에잇든 佛蘭西體協『고리一몬』氏外二委員은 數個月동안의

滿都期待望의『빡께임』
普專 立敎 럭비一對抗戰
今日午後京城球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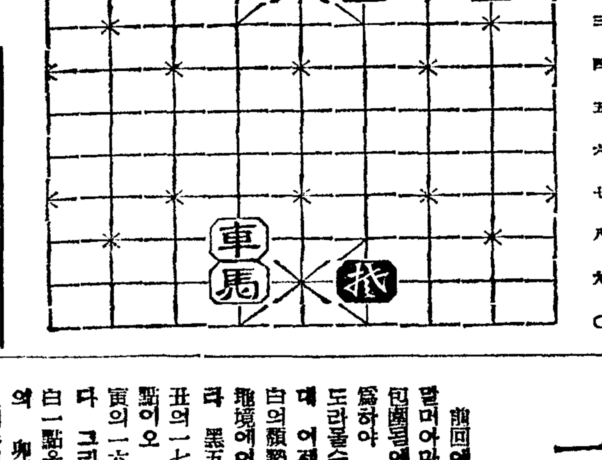
今年一즌도래서처음으로 滿都럭비一판의 興味를集中한 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來征第一戰에 全京城軍을 十五對三의大差로이긴 立敎軍은 자못士氣旺盛하야 어넘에臨할터인데 前日에對戰한것은 名稱만은 全京城軍이엿스나 具合之卒이라 ... 成專門의 럭비一軍 來의 立敎大學對普 四日午後五時 京城

前日의 全京城軍과가튼 擴散은 하지안을것으로 豫想된다 ... 面意外의快績을남길것이며 현인 立敎의迅速正確한『품레이』와『로』한 ...

今日의運動

◀럭비=朝鮮럭비一協會主催 立敎大學럭비部招聘第二日全普專對立敎 午後五時 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五十錢·少中學生三十錢·軍人無料)

◇博譜大集 118
【昨題解答】



一 ... 一車 一八 二兵...

三車一三呼將 六士一五車打 三馬一三包將 六士一四 三馬一四呼將 楚勝

（博譜係）

絢爛！東方大衆演藝의萬華鏡
日·滿·露代表的明星六十餘名大動員

맑은세가에 白鳥가 잠드렷고 하늘엔 별어꿈이야기하는밤 노래와춤의 큰잔체가 열린다

全東洋歌舞大會

四月十一、十二、十三日 每夜 七時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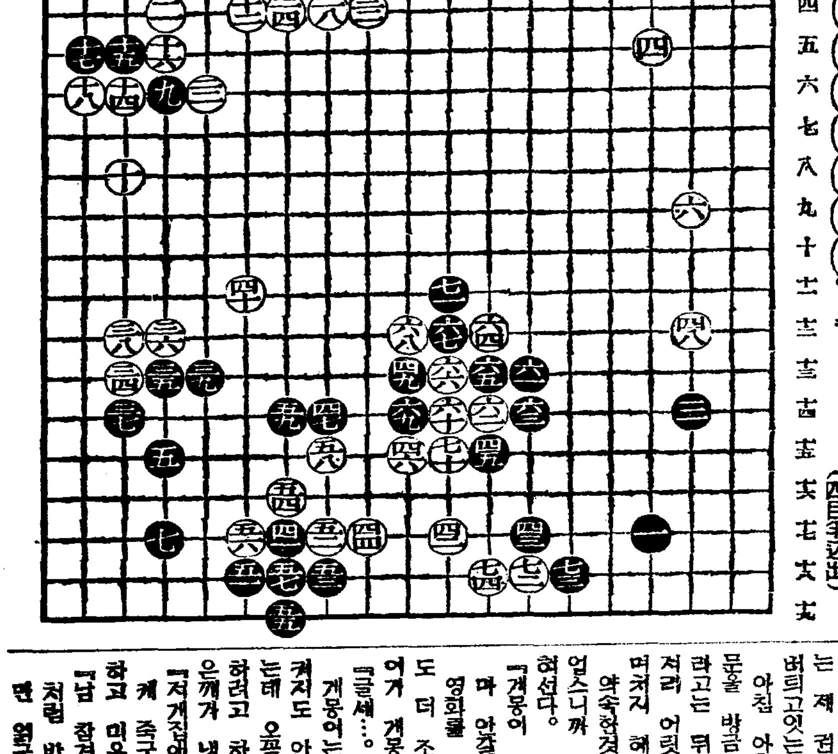
◇名妓名唱의歌謠와舞踊
◇滿洲國唱戲 神話舞劇『天女散花』 史劇『虹霓關』
◇露西亞 엣센트리에뉴一團一行

主催 朝鮮日報西部東部兩販賣所
後援 朝鮮日報事業部

府民館에서
指定席二圓·一圓·一般一圓 半圓
本報讀者에게는五十錢減

國手爭覇譜 (6)
本社獨占

白 任佑植
黑 金秉浩
（四目半込出）



一 卯의十八 二 丑의十七 三 寅의十八 四 丑의十六 五 寅의十九 六 卯의十七 七 寅의十八 八 丑의十五 ...（以下 盤面記譜）

● 毛… 寅의十八 ○ 吾 寅의十八 …死 點…

一層擴大되는
黑의優勢陣營

前回에서 白四八의 亂調로 말미아마 下邊中央의 白陣이 包圍되에 그의苟生을 圖하기 爲하야 中央白地가 破壞될도 도리할수업게된것을 말하얏는데 어재그것은 漸次擴大되어야 白의頹勢는 到底히救할수업는 地境에어룰도한 危險이업지안타 黑五一卯의一八과 白五二丑의一七은 서로缺할수업는打點이오 黑五三 丑의一八은 寅의一六에두는것여 올흘듯하다 그리고 黑여 寅의一八의 白一點을 敢할터이면 黑五一의 卯의一八을 먼저丑의一八에두어야할것언데 그手順에 서는 그리지안코 어제 새삼스럽게 丑의一八에두어 白一點을取하는것은 얼직 생각치안흔것을새로케다른바 엇는것어 아니다 그리하야 白一點을取한것보다 더만여 黑地가 破壞되는것은 도시 自取로 말미암은 것이어니라 할수업다

白五四 寅의一六으로 버롯하야 黑五五 寅의一九、白五六 卯의一七、黑五七 寅의一八等은 모다 缺할수업는 酬應이오 白五八 丑의一五와黑五九 寅의一四도 그러하다邊地에서 完生치못하니 白六〇은 壬의一四에두어 包圍線을 突破해 보랴고 하얏스나 黑六一이庚의一三에두어 白의脫出을 阻止하니 어재 白 外圍가 全部黑의天下가되야도 어白陣만은 救하지아니할수업서 包圍中에서 苟活을 꾀하고잇다白六二 辛의一四、黑六三 庚의一四및白六四 辛의一二、黑六五 辛의一三、白六六 壬의一三은 모다 通常의酬應어오黑六七 壬의一二는 먼저癸의一四에 두는것도 조흔대 어재 그로말미아마 先後手의差가업게되얏스니 問題된것어업다白六八 癸의一二는 中央의白地가 破壞됨을 엿지못하는것이 아니지마는 여재 어찌수업는 打點이오 黑六九 癸의一四와 白七〇 壬의一五는 通例의酬應이다 그리하야 黑七一이壬의一一로 直走하니 白七二는 庚의一八에두어 中央問題는黑의 敗勢를 도리할수업게되얏다 그러므로 黑七三은 巳의一八 白七四 壬의一八은 當然한 酬應어 어니와 그와가티하야 白이겨우苟生을 꾀하는동안下邊左右에 巨大한黑地가 堅固히構築하얏슬 뿐만아니라中央一帶에黑勢가 擴大되얏스니 여재여 려한黑의優勢는 그무엇으로도 制止키어려울것이다

長篇小說 濁流 【169】
蔡萬植 作 鄭玄雄 畵

彈力잇는『아침』(8)

××백화점 맨 아래층의 화장품 매장이다。

위와 안바히 환히 더러다보이는 유리진열장(陳列欌)을 뒤쪽한편만 벽을 의지삼고 좌우와아프로 병 둘러 짜노은게 위선 시원하고 정갈스러 눈에 선뜻 비인다。

진열장 속과 위로는、형상이 모두 각가지요 색채가 아롱이다롱이기는 하지만 제각금、용기(容器)의 본새랄지 가、어느것 할것업시 섬세하고 아담하게 여자의 감정을 표시한 화장품들이 좀 칙칙하다 하리만치 그득 더라차여잇다

두광은 되어직한 진열장 둘레 안에는 그들이 팔고잇는 화장품 못지안케 맵씨 말숙하게 한『숍껄』이 넷、모두 고도래고도래 들이다。

계봉이가 엇고 얼굴 동그소롬하니 예뿌장스럽게 생긴 청글로 깍거올린 단발생어가 엇고 코가 오똑하니 눈도 오뭄 업도 오뭄한 오뭄어재 엇고얇디 얇은 얼굴에다가 죽은깨를

『후一 소설 읽는 취미를 것는건 버젓한 교양이다!』

『헌데 좀 저급해!』

계봉어가 도루 나서서 죽은깨를 진제인다

『어째서 어넌야 소설 읽는게 저급하드냐?』

『소설 읽는게 저급하다나?…여사람 오할세』

『읽는 소설이 저급해!』

『그럼 무엇어 저급하니?』

『어쩌니 내가 읽는소설어 저급하니?』

『국지면어 소설어 저급하지? 『×××』어 저급 하잔쿠?…。그런건두 예술 속에 끼나?』

『예술은 다 무엇 팔러비트러진거냐? 소설어면 거저 소설이지…』

『하하하하… 올하、네말어 올하。그래두 추월섀어나 유충렬전을 어읬으니 그건 선통하다!』

『저년어 버르쟁어 업서、사람 막 놀려!』

『그게 싱통해서、네 교양 점수(點數)을 육십점은 주마!…。그 낙제나 면하라구、응?…。그려구 너는…』

계봉이는 오뭄어를 젤번어러

과히 발려노흔『레지』가 착그량 거리고 안젓고……。

어가운데 양복 말숙하게 엽고 얼굴 검으테테 하로무 우롱수롤한 사내꼭지가 한놈、감히 드려안저 엇스믄 매우 천월하다하겟다。

그러나 남은 화초마테 귀석어라고 서기끄테 떨게 몰르지 몰라도、망자는 겁인(檢印)여스탐푸를 손에 쥐고、물건 싸게 지의 봉인따지애다가 주엄어라는 재 권위를 꾸욱꾹 찍느라버릇고잇는양어다。

아침 아홉시가 조금 지냇고 문을 바금 연 참이라 손님여 라고는 뒤집 재고 어려 깨못 저려 어렷 구경은 색굴 사람며처지 헤성헤성하다。

약속하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업스니까 모두『레지』아프로모혀선다。

『계봉어 어따가 저던에 저때 마 안걸니?』

영화를 아직까지는 연애보다 도 더 조타고 주장하는 오뭄어게 계봉어를 꼬어든것에다。

『글세…。썩 조흔거러면…』

계봉어는 실치도 안치만 때 커지도 안혀서 그럼 대답을하는데 오뭄어가 무어라고 말을하려고 하는것을『러지』의 죽은깨가 냉큼 배덮어

『저게집애는 영화관만 얘저려 케 죽구 못살까?』

하고 미운소리를 한다

『남 참견은!어넌어 누가 너처럼 바낫 꾀라붇하게 소설 읽구 엇드냐?』

면서 남자 어른들 웃섬을 자내내어 하는 소리다。

『…거 아무리 근대적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구하더래두 개집어어가 영화를 너무 보러다니면은 데숙여에 용? 압엇서? 불짜(不字)거 붓는 법어다。』

『거정을 말어 에게집애야…』

『요놈!』

께 지르는 소리자 무심결에 너무 커서 주엄어 주의하라는 뜻으로 벙긋어 우스니까 춘봉은 도라서서 손으로 엽을 떤는다。

오뭄여와 죽은깨가 째원한김에 재그르르 웃는다

『무엇을 그래?』

물건을 파느라고 여애거 잠예를 못해든 단발생여거 엇려루 오면서、혹시 제게 우슴거리게 되엇나 뚜렛뚜렛한다。

『그리구 참、너는 무어냐?』

계봉어게 또 나서서 단발생어의 팔을 잡어 끈다。

『무어라니?』

『저애들 둘은 하나는 문학소녀구 하나는 영화팡어구、그런데 너는 무어냐?…』

『연애? 그럼겨?』

『내 원!…。너는 무어냐?…』

『너버들 말해봐라!』

『그래그래』

『올하、재개 먼점 말해예지』

오뭄여와 죽은깨가 한거번에 들고 나서고、단발생여거 텐다

계봉어를 못잡으면서 떠전다

『내가 올캐 연애파지?…。연애던지거 며구 숙다지구…』